

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. 12. 2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난독증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홍복조 의원 등 9명(박왕규, 원종진, 윤권근, 김화덕, 김기열, 이영빈, 박정환, 배지훈)
- 발의일자: 2021. 11. 17.
- 회부일자: 2021. 11. 19.
- 상정 및 의결: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1. 12. 2.)

2. 제정이유

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난독증 아동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- 다. 난독증 아동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: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
- 비용추계: 미첨부 대상
- 입법예고(2021. 11. 17. ~ 2021. 11. 29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조례안은 시각과 다른 학업 영역에서 적절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철자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교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,
- 특히 난독증으로 인한 읽기의 어려움은 교과학습 뿐만 아니라 정보획득을 통한 사회생활 영위의 필수적인 기초기능에 영향을 끼치므로 난독증 아동의 치료지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관련이 있음.
- 교육부가 2014년 전국 154개교를 표본으로 난독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초등학생 8,575명 중 4.6%가 난독증 또는 난독증 위험군으로 나타나, 2014년 전국초등학생 27만 명을 기준으로 약 12만 5천여 명이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.
-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난독지원사업은 2018년 88명, 2019년 126명, 2020년 159명을 지원하였고, 2021년에는 지원대상이 226명으로 2020년에 비해 67명(42.14%) 증가함.
-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21년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난독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, 2021년 대구난독바우처 제공기관 42곳 중 14개 기관이 달서구에 있는 등,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달서구의 사회적 기반이 충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정책적·제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□ 2021년 대구난독바우처 제공기관 현황

구분	남구	달서구	달성군	동구	북구	서구	수성구	중구
현황	1	14	3	5	9	1	7	2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